

종교교육학연구 제46권. pp.67-96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2. 30.

동학의 치유와 생명교육*

정 혜 정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요 약〉

동학은 수운의 영부(靈符) 체험에서 창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부는 “인간에게 있는 본연의 한울”이요 “천지만물이 본래 한 기운(一氣)이자 한 마음(一心)”인 우주대생명체를 상징한 도상(圖像)이다. 동학은 각자위심에서 오는 개인의 질병과 사회적 제도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악질을 영부의 투득(透得)으로 치유하고자 한다. 투득이란 한울의 마음, 천지의 지극한 기운과 하나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천지만물을 꿰뚫어 우주로 뻗치는 일통(一通)의 한 마음, 한 기운의 대생명을 자각함으로 자신을 치병(治病)하고, 우주정신의 ‘산 혼(魂)’을 회복하여 인간사회의 폐단을 치유하는 총체적 ‘살림’이다. 일제하 방정환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어린이운동에서 동학의 생명사상은 ‘원기(元氣)’로 이해되었고 그것은 원기의 뻗침, 생명사랑과 자연놀이를 통한 생명의 화용, 타자의 슬픔과 고통을 눈물로 체험하는 아동예술, 비참한 조선현실의 인식, 그리고 새로운 조선사회를 건설할 ‘주체’의 육성과 연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명교육으로 표출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생명사랑과 자연과의 교감은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 놀이를 통한 자연놀이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현대 생태교육에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핵심주제어: 동학, 해월, 영부, 생명, 원기, 생명교육, 어린이 운동, 자연놀이

I. 서론

동학(東學)은 ‘아(我) 동국(東國)의 학(學)’, 즉 ‘우리의 학문’으로 수운은 동학을 천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天道)라 일컬었다. 천도는 곧 영부(靈符)로 상징되는 선약(仙藥)으로서 우주에 가득 차 천지만물의 생성과 생명을 이루는 지극한 한 기운(至氣), 한울님(天)으로 이해되었고, 이는 또한 마음(心)으로도 지칭되었다. 인간에게 있어 고통과 질병은 지극한 기운, 즉 한울님과 합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었고 이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폐단인 ‘각자위심(各自爲心)’에서 오는 것이었다. 수운이 “영부로 사람과 세상의 질병을 건지라”한 것처럼 동학의 치유는 영부로 가능하고, 영부란 ‘한울과의 일체’됨을 상징한다. 동학의 영부를 통한 치유는 ‘전일적 우주생명과 단절된’ 각자위심의 마음을 한울 마음으로 돌리고, 운이 다한 조선봉건사회의 부패와 억압으로부터 민(民)을 구하며(보국안민), 인간과 사회뿐만 아니라 널리 못 생명의 고통과 질병을 구하는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치유였다.¹⁾

역사적으로 동학은 시대마다 개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의 치유를 동시에 전개하여왔다. 동학혁명 이후에는 천도교로 개칭하여 새로운 근대국가수립을 위한 문명개화운동으로 나갔고, 일제 식민지로 접어들어서는 비록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3.1운동을 통해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수립으로 새로운 국가의 대강을 구성했다. 한편 3.1운동으로 양한묵, 손병희의 죽음과 천도교인의 많은 희생으로 조직이 거의 와해되었지만 다시 천도교 청년회를 결성²⁾하여 신문화운동의 6개 부문(농민, 노동자, 청년, 여성, 학생, 어린이)으로 신조선(新朝鮮)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일제하 동학의 어린이교육운동은 동학의 영부(靈符)사상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는 ‘한울의 영성’, ‘천지만물의 생명’, ‘원기(元氣)’로 명명되었고, 천지만물의 생명과 하나 된 원기를 기쁨에서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고자 했다. 그리고 치유의 노력은 곧 생명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은 단지 의학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심적, 사회적, 영성적 차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는 곧 교육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이다.

방정환이 사용한 ‘어린이’라는 용어는 ‘늬은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새로움과 해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는 소년과 어린이를 혼용해서 사용했고, 『어린이』의 독자는 유아³⁾에서 19세까지 광범위했다. 어린이지는 어린이의 연령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

1) 동학의 치유와 관련한 기존연구로는 김용해와 이유경의 논문 2편이 있다. 김용해는 수운의 영부와 주문을 신앙과 치유의 원리로 접근하여 ‘개인의 치유와 사회구제’가 분리되지 않음을 밝히고자 했다.(김용해, 『시천주 조화정: 신앙과 치유의 원리』, 『동학학보』17 (서울: 한국동학학회, 2009), 237-263쪽) 또한 이유경은 C. G. 융의 분석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동학의 영부를 ‘깃발 모양의 만다라 형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대극의 합일’, 집단무의식으로서의 ‘자기원형(Self-Archetype)’의 체험과 같다고 보았다.(이유경, 『천도교 교조 수운 최제우의 원형적 체험과 치유적 수용에 관하여』, 『심성연구』23(서울: 한국분석심리학회, 2008), 114-136쪽) 본 연구에서 영부의 해석은 경전에 입각해 해월 최시형의 입장을 따랐다.

2) 천도교 청년회는 1919년 9월에 결성되었고 1923년에 가서 천도교 청년당으로 고쳤다.

3) 『어린이』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꾸린 사례로는 “염근수, 『아기들 차치 유치원 동화 두 편』”,

다. 어린이 독자 가운데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연령층이 80%정도였고, 19세 이상 독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김기전은 14-15세의 소년소녀를 『어린이』의 주된 독자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독자들은 오늘날 중학생 정도의 연령에 해당하는 소년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방정환을 중심으로 펼쳐진 천도교 어린이 운동은 동학의 광제창생, 후천개벽, 보국안민을 계승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전통봉건사회의 유습을 개혁하고, 억압과 굶주림에 눌려있는 어린 생명의 원기를 길러 자라나는 어린이로 하여금 새로운 조선 사회를 일구고자 했던 총체적 치유였다. 잡지 『어린이』의 방향도 광제창생, 후천개벽, 보국안민의 방향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원기의 뻗침, 자연놀이를 통한 생명의 기쁨, 타자의 슬픔과 고통을 눈물로 체험하는 아동예술,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인식케 함과 더불어 새로운 조선 사회를 건설할 ‘주체의 육성’이 주된 흐름을 이룬다.

이에 본 연구는 동학의 치유개념을 영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영부의 치유가 어떻게 생명사상으로 이어졌으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근대 식민지 공간에서 펼쳐졌던 소년운동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생명교육을 전개시켜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동학의 치유와 생명사상

1.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질병

수운은 수년 동안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생령들의 상해(傷害)를 목도했고, 세상의 모든 “괴질(怪疾)과 악질(惡疾)”이 인간이 한울님과 합하지 못하는 “각자위심(各自爲心)”에서 비롯됨을 목격했다. 각자위심이란 자기만을 위하는 ‘자존자(自尊者)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한울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逆理者), 물욕에 막힌 비루자(鄙陋者), 세상을 헛말로 미혹시키는 자(惑世者), 한울을 기만하는 자(欺天者)라 할 것이다.

이 세상 풍속됨이 陰害가 주장함이라.⁵⁾

我東方 年年怪疾 人物傷害 아닐런가⁶⁾

顛覆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 逆理者요 物慾交蔽 되게 되면 이는 역시 鄙陋者요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역시 惑世者요 안으로 不良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 欺天者라 ... 허다한 世上惡疾

“양재웅, 『유치원 동화 박취이야기』”(『어린이』8-6, 1930.7), 이태준의 유치원 소설 『물라쟁이 엄마』(『어린이』9-2, 1931.2) 등을 꼽을 수 있다.

4)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5) 『용담유사』, 『홍비가』.

6) 『용담유사』, 『권학가』.

勿藥自效 되었으니 奇異코 두려우며...⁷⁾

수운은 온 세상 사람이 各自爲心하여 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디로 향할 바’를 모르고 있다.⁸⁾ 했다. 이는 자국인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惡疾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傷害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이 또한 순망지탄이 아닌가. 장차 보국안민의 계책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⁹⁾

동학은 “악질(惡疾)이 세상이 가득 차서 ‘民’이 하루도 편안할 때가 없던 때”, ‘民’을 도탄에서 건지기 위한 치유책으로서 창도되었다. 매관매직하는 세도가든, 전곡(錢穀)을 쌓아 놓는 부자든, 유리결식하는 패가자든 모두 한울의 한 마음이지만 각각이 ‘각자위심’하여 궁궁촌 찾아가고 서학에 입도하면서 자기만 옳고 자기방식만 맞다고 하는 현실이다.

매관매직 세도자도 일심은 궁궁이요 전곡쌓인 부첩지도 일심은 궁궁이요 유리결식 패가자도 일심은 궁궁이라 風便에 뜨인자도 혹은 弓弓村 찾아가고 혹은 서학에 입도해서 각자위심 하는 말이 내놓고 네 그르지¹⁰⁾

각자위심은 현대적 용어로 풀면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적대시하고 제거하여 오로지 자신의 에고를 극대화하려는 삶의 방식, 혹은 폐쇄적 개인주의, 무규제적 자본주의, 민족과 국가를 절대화하는 전체주의 등 모든 사회가 지닌 병폐와 모순”¹¹⁾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돈화는 수운이 말한 질병을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사회적 질병 등 세 가지로 말했다. 특히 정신적 질병은 소유심의 발작에서 생겨나는 모든 악습, 허위, 간교, 쟁탈, 시기 등의 정신적 부패를 지칭하고, 사회적 질병은 경제적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 知力の 불평등을 이룸인데 이 모든 질병을 구제하고자 하면 인류가 먼저 영부적 천심을 회복하는 재생운동에서 사회개조를 힘써야 할 것이라 했다.¹²⁾ 동학의 치유는 각자위심으로 생겨난 ‘한울과 분리된 마음’, ‘사회적 병폐와 모순’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 생명과

7) 『용담유사』, 「도덕가」.

8) 『東經大全』, 「布德文」.

9) 『東經大全』, 「布德文」,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攻取 無事不成 而天下盡滅 亦不無臂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10)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11) 김용해, 「시천주 조화정: 신앙과 치유의 원리」, 『동학학보』17 (서울: 한국동학학회, 2009), 258-260쪽.

12) 이돈화, 『수운심법강의』(경성: 천도교중앙종리원, 1924), 29-30쪽.

하나 됨으로 돌아가는 동귀일체의 치유이다.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 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더니¹³⁾ 各自爲心 그 사람이 同歸一體 되었으니
차차차차 시험하면 一天之下 그 가운데 萬化歸一 아닐런가.¹⁴⁾ 한사람이 착해짐에 천하가 착해진다.¹⁵⁾

각자위심의 정반대의 상태는 영부로 상징되는데 한울을 상실한 문명세상은 괴질로 넘쳐나는 세상이다. 자신의 ‘한울 됨(궁궁)’을 깨닫지 못한 자, 한울과 분리되어 각자위심하는 자는 병든 자요, 한울님과 일체가 되면 병든 인간이 치유가 되고 병든 사회가 함께 회복된다. 영부는 곧 한울님과 합한 경지이다. 영부와 각자위심을 ‘나무와 잎’에 비유하면, 잎이 나무와 무관하다 하고, 잎이 나무의 전체생명과 단절되어 부패해가는 것이 각자위심이라 할 것이다. 인간의 고락성쇠(苦樂盛衰)는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는가 합하지 못하는가에 있고, 각자위심하는 자는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옳기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생명을 어긴다.”¹⁶⁾

2. 동학의 치유와 영부(靈符)

수운은 영부로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하고 주문을 가르쳐 “한울님을 위하게 하면” 인간과 사회의 괴질은 치유된다고 보았다. “영부의 체험을 통해 동귀일체(同歸一體)하고”,¹⁷⁾ 21자 주문과 수심정기의 수련을 통해 한울님과 합일하면 제인질병(濟人疾病)이 되고, 국태민안(國泰民安)으로의 사회치유가 되는 것이었다.

즉 주문과 영부는 ‘나와 천지만물이 하나 된 심천상합(心天相合)’, ‘천인합일’, ‘우주대생명의 한 기운’을 글과 도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양자의 차이는 방편적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동학의 치유는 영부와 주문을 통한 치유로서 각자위심을 천심(天心)의 동귀일체로 돌려놓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해월에 의하면 영부는 수운이 “인간이 한울은 알아도 한울이 곧 자신의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함을 근심해 부도(符圖)로 궁을(弓乙)을 그려내고, 심령의 약동불식(躍動不息)하는 형상을 겹으로 나타내 천지만물의 시천을 가르치고자 한 것”¹⁸⁾이다. 또한 “주문 삼칠자는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天書”¹⁹⁾를 뜻한다. 영부와 주문 양자 모두 이를 사

13) 『용담유사』, 「교훈가」.

14) 『의암성사법설』, 「무하사」.

15)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一人善之 天下善之.

16) 『東經大全』, 「論學問」, 定其人 苦樂之理 然而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 故與天地合其德 小人之德 其不正而心有移 故與天地違其命.

17) 『용담유사』, 「교훈가」.

18) 『海月神師法說』, 「其他」.

19)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람에게 나타나고, 가르쳐 세상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의 영약(靈藥)으로 상징된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長生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²⁰⁾ 궁을(弓乙)의 그 모양은 곧 마음 心字이다. ... 궁을은 우리 도의 부도(符圖)요 천지의 형체이다. ... 태극은 현묘한 이치니 환하게 깨치면 만병통치의 영약(靈藥)이 된다.²¹⁾ 주문 삼칠자는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天書이다.²²⁾

치유는 영부를 환하게 깨치는 ‘투득(透得)’에서 가능한데, 투득이란 분리되고 단혀지고 제한된 개별적 마음·기운을 넘어 한울의 마음, 천지의 지극한 기운과 하나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천지만물이 본래 한 마음인 그 일심(一心)과 하나 되고, 천지에 가득 차고 우주에 뻗어있는 그 천지의 일기(一氣)와 하나 되는 것이 심화(心和)요 기화(氣和)로서 이는 곧 수심정기의 수행이다. 영부와 주문을 통해 수심정기 하면 기화·심화가 이루어져 운절된(상실되고 끊어진) 천지 기운(한울님)과 일체가 되고, 수심정기에 의해 기화가 이루어지면 영부의 형상처럼 한울과 땅과 인간, 천지만물이 일체가 된 상태, 즉 한울의 마음, 한울의 기운을 회복하여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치유란 “십삼자로 만물화생의 근본을 알고 수심정기로써 천지가 크게 和하는 원기를 회복함”²³⁾이요, “질병은 사람이 모두 수심정기하여 心和하고 氣和하면 능히 면할 수 있는 것”²⁴⁾이며, “마음을 다스리어 心和, 氣和가 되면 약이 필요 없다.”²⁵⁾ “수심정기 네 글자로 천지가 隕絶된(상실되고 끊어진) 기운을 다시 보수(補修)하고”²⁶⁾ 심화와 기화를 이루면 만병이 치유된다. 심화와 기화를 이루지 못함이 곧 병든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약만 쓰는 것은 병의 치유가 될 수 없다.

마음이란 내게 있는 본연의 한울이요 천지만물이 본래 한 마음(一心)이다. 천지의 마음은 신령하고 천지의 기운은 넓고 푸르려 천지에 가득 차고 우주에 뻗어 있다. ... 지금 사람들은 다만 약을 써서 병이 낫는 줄만 알고 마음을 다스리어 병이 낫는 것은 알지 못하니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약을 쓰는 것이 어찌 병을 낫게 하는 이치이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약을 먹는 것은

20) 『東經大全』, 『포덕문』,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21)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經曰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 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弓乙其形即心字也 ... 弓乙吾道之符圖也 天地之形體也 故聖人受之 以行天道 以濟蒼生也 太極玄妙之理也 透得即 是爲萬病通治之靈藥矣.

22)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呪文三七字 大宇宙 大精神 大生命 圖出之天書也.

23) 『海月神師法說』, 『其他』.

24) 『海月神師法說』, 『三災』.

25)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26) 『海月神師法說』, 『守心正氣』.

이는 한울을 믿지 아니하고 약만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상하게하면 마음으로써 병을 나게 하는 것이요 마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으로써 병을 낮게 하는 것이다. ... 만약 마음을 다스리어 심화 기화가 되면 냉수라도 약으로써 복용하지 않는다.²⁷⁾

3. 동학의 영부와 생명사상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운이 체험한 영부는 “우주만물에 모셔져 있고, 하나로 꿰뚫어져 있는 신령한 천지의 마음과 합하는 것”이고, “천지만물에 가득 차고 우주에 뻗쳐 있는 천지 기운과의 합일”을 의미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한울의 영기를 모시고 태어난 것이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또한 한울의 영기를 모시고 사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사람만이 홀로 한울님을 모셨다 이르리오. 천지만물이 다 한울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 저 새소리도 또한 시천주의 소리이다. 우리 도의 뜻은 한울로써 한울을 먹고, 한울로써 한울을 화할 뿐이다. 만물이 낳고 나는 것은 이 마음과 이 기운을 받은 뒤에야 그 생성을 얻나니 우주만물이 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꿰뚫어졌다.²⁸⁾

이돈화는 수운이 체험했던 이러한 영부를 “천지만물의 생명”, “사람의 생혼”, “한울의 대혼백(大魂魄)”이라 하였다.²⁹⁾ 이는 영부를 “우주 한 기운의 생명체”로 보는 생명사상으로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돈화는 수운의 영부체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히는 것이 없고 다만 無限한 虛空에 燦爛하고 輝煌한 빛이 가득히 차서 뛰고 動하고 번쩍거리되 宇宙의 한 끝과 한 끝이 서로 맞닿은 듯하며 한울과 땅의 뿌리가 서로 얹히어 온 天地萬物이 그 밑층으로부터 낳다 꺼지고 꺼졌다 다시 나는듯한지라 大神師ㅣ 이것이 靈符임을 알고 ... 다시 守心正氣한즉 靈符의 光彩ㅣ한울과 땅의 속을 뚫고 일만 物件의 가운데를 通하여 가지고 눈앞에 宛然히 보이며 다시 空中으로 말이 들리되 ‘네ㅣ 白紙를 펴서 이 靈符를 받으라’ 하거늘 大神師 말대로 白紙를 편즉 靈符ㅣ 白紙우에 비치워 뛰고 動하는 것이 그 形象이 宛然히 太極의 形容같고 굽은 선의 움직이는 模樣이 宛然히 弓乙과 같거늘... 이로 아 영부는 천지만물의 생명이며 사람의 생혼이며 세상을 살리는 한울의 대혼백임을 알으시다.³⁰⁾

27)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心者 在我之本然天也 天地萬物 本來一心 ... 天地之心 神神靈靈 天地之氣 浩浩蒼蒼 滿乎天地 亘乎宇宙也... 今人 但知用藥愈病 不知治心愈病 不治心而用藥 豈有差病之理哉 不治心而服藥 是不信天而信藥 以心傷心 以心生病 以心治心 以心愈病... 若治心而心和氣和 冷水不可以藥服之.

28) 『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 吾人之化生 侍天靈氣而化生 吾人之生活 亦侍天靈氣而生活 何必斯人也 獨謂侍天主 天地萬物 皆莫非侍天主也 彼鳥聲 亦是侍天主聲也 吾道義 以天食天 以天化天 萬物生生 稟此心此氣以後 得其生成 宇宙萬物 總貫一氣一心也.

29) 이돈화, 『천도교창건사1』(경성: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14쪽.

30) 위의 책, 12-13쪽.

이돈화가 묘사한 수운의 영부체험은 ‘하나 된 천지만물의 생명을 자각’한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한울의 살아있는 혼(生魂)’으로서 천지만물을 꿰뚫어 우주로 뻗치는 일통(一通)의 우주一心, 즉 천지 기운과 하나된 ‘우주생명’의 체험이었다. 모든 생명은 개개의 날생명이 아니라 우주전체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는 온생명이다.³¹⁾

영부가 생명사상으로 이어 지는 것은 “우주만물이 모두 一氣一心으로 꿰뚫어져 있고”³²⁾ “마음은 인간에게 있는 본연의 한울이요, 천지만물이 본래 한 마음이며”, “천지의 마음은 신령하고 천지의 기운은 호창(浩蒼)하여 천지에 가득차고 우주에 뻗쳐 있음”³³⁾을 말한 해월의 해석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인간과 만물이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을 모시고 태어남이요 천지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다.”³⁴⁾ 그래서 해월은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으므로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을 금치 않아도 자연히 금해질 것이”³⁵⁾이라 했고, “眞實은 천지생명체”³⁶⁾에 있다 하였다. “천지생명체는 비어서 고요하고 움직이면서 전일하며 형상은 없으나 형상을 나타내는 혼원한 기운의 참된 것(眞者)이다.”³⁷⁾ 즉 “천지는 한 기운 덩어리(一氣塊), 한 기운 울타리(一氣圓)”³⁸⁾요, “만물은 천도의 표현”³⁹⁾이다. 그러므로 “천지생명이 부모임을 모르고”, “생명을 훼손하고 배척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불효”⁴⁰⁾라 해월은 말했던 것이다.

주문 삼철자 역시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天書”⁴¹⁾를 의미하고, 동학의 한울사상이 이러한 영부와 삼철자 주문에 바탕해 있다고 볼 때, 동학은 곧 우주만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생명사상이라 할 것이다. 일제하 천도교 어린이운동에서 동학의 한울사상이 생명과 원기(元氣)로 해석되고, 원기의 육성으로 조선을 치유하고 생명교육을 펼쳐나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명과 원기는 모두 한울(영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언급된 바 있고, 대우주생명과의 심화(心和)·기화(氣和)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어린이운동에서 생명교육은 동학의 영부 치유와 한울생명의 회복을 계승했다고 할 것이다.

31) 날생명과 온생명은 장희익의 글에서 따 온 것이다. 자세한 것은 장희익, 『물질, 생명, 인간 : 그 통합적 이해의 가능성』(과주 : 돌베개, 2009), 참고.

32) 『해월신사법설』, 「靈符呪文」.

33) 『해월신사법설』, 「靈符呪文」.

34) 『해월신사법설』, 「靈符呪文」.

35) 『해월신사법설』, 「待人接物」, 萬物莫非待天主 能知此理則 殺生不禁而自禁矣.

36) 『해월신사법설』, 「虛와 實」.

37) 『해월신사법설』, 「虛와 實」. 天地生命體也 ... 虛而靜 動而專 無像而像者 是渾元一氣之眞也.

38) 『해월신사법설』, 「天地人 · 鬼神 · 陰陽」.

39) 『해월신사법설』, 「其他」.

40) 『해월신사법설』, 「待人接物」.

41) 『해월신사법설』, 「靈符呪文」.

Ⅲ. 동학의 치유와 생명교육

1. 어린이 운동에서 치유와 생명교육

나의 한 기운은 천지우주의 원기(元氣)와 한 줄기로 서로 통했으며, 나의 한 마음은 조화귀신의 하는 바, 한 집의 활용이니, 그러므로 한울이 곧 나며 내가 곧 한울이라.⁴²⁾

방정환은 조선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원기⁴³⁾를 통한 사회적 치유를 제기했다. 그것은 조선 학생의 원기(元氣)를 육성함에서 얻는 새 사람, 새 일꾼, 새 인물, 새 일의 시작으로부터의 치유였다. 조선 사회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그대로 아무것도 지어진 것, 완전히 선 것이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이 땅을 사는 학생들에게는 광명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불쌍한 처지에 있을수록 남보다 더한 원기를 길러 갖추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조선의 사회는 자리잡히지 못했습니다. 옛날의 세력을 가지고 지탱하여온 사회는 모조리 허물어져 버렸고 새로이 지어진 것은 아직 완전히 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옛날 지식 옛날 생각밖에 가지지 못한 인물들은 백 천가지 일에 실패하여 패망하였으니 그들은 재기할 기운도 재주도 없어져 버렸고 오직 새사람이다 새일꾼이다 하고 새 인물이 나와서 새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님닛가. ... 우리 조선 학생기질은 먼저 ‘내어뻘치는 원기가 있어 씩씩하다’는 점에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씩씩한 원기에서 나옵니다. 초간삼간이 마저 쓰러진다하여도 그집 젊은이에게 남달리 뛰는 원기만이 있다면 이보다 몇배 더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새로 일어나는 학생군에게 씩씩한 원기가 넘쳐 뻘치는 바 있다면 무엇이 슬픈 일이겠습니까 원기외다! 원기외다! 당신은 조선의 학생이외다. 조선의 아들이외다. 조선의 학생들에게는 앞에 보이는 광명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도 더욱 불쌍한 사람이 조선의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하겠습니까. 불쌍한 처지에 있으니가 그것이 싫어서 자살해버린다면 已커니와 불쌍하면 불쌍한 처지에 있을수록 남보다 더한 원기를 길러갖추어야 아니함닛가. 처지와 환경이 험난하면할수록 그 험난을 능히 이기고 뚫고 나가서 새 세상을 가져올 기운을 길러가져야 아니함닛가. 지금 우리에게 이 기운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⁴⁴⁾

방정환이 조선 학생의 기질을 “내어뻘치는 원기가 있어 씩씩해야 할 것”에 두고 원기! 원기! 를 외친 것은 “험난한 처지와 환경을 능히 이기고 뚫고 나가서 새 세상을 가져올 기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원기와 패기가 전체로 넘쳐흐르면 교원이 또

42) 『海月神師法說』, 『其他』.

43) 여기서 말하는 원기란 해월의 말처럼 “천지에 가득차고 우주에 뻘쳐 있는” 천지생명체의 지극한 기운(至氣)이라 할 것이다.

44) 방정환, 『조선의 학생기질은 무엇인가』, 『학생』1-3, 1929.5.

한 이에 자극되고 부형이 자극되고 또 일반사회가 자극되어 신흥하는 패기는 이윽고 삼천리 전체에 차고 넘쳐”⁴⁵⁾ 조선이 치유될 것이었다. 원기의 씩씩함으로 사회를 치유하고자 함은 동학적 세계관을 계승한 것으로 이는 곧 한울 생명력의 기쁨이자 회복이었다. 방정환은 한울의 원기를 살리는 맥락에서 어린이 운동 표어 역시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 갑시다.”⁴⁶⁾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린이는 한울의 그림자요,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할 나라이자 신조선의 미래였다.

여러분은 장래 우리인류의 모든 괴로움 많고 험절 많은 생활을 다시 깨끗하고 평화롭고 즐거움만으로 살게 되도록 개조할 희망과 힘을 갖으신 새 인물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지극히 공경합니다. 아아! 여러분이여, 지금 이세상이 아모리 썩고 망한대도 새일군들인 여러분이 있음으로 세상은 다시 바로 잡힐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씩씩한 소년이 됩시오.’ 이 씩씩하다는 말은 결코 활발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씩씩한 소년은 항상 활발하고 용기 있으며 매사에 경첩하고 민활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도와줄 줄 압니다.⁴⁷⁾

새와 같이 꽃과 같이 앵도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그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그대로 한울의 소리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토끼와 같이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뛰노는 모양 그대로가 자연의 자태이고 그대로가 한울의 그림자입니다. ...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 그것은 우리의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까지도 이 한울나라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세상에 사는 사람사람이 모두 이 깨끗한 나라에서 살게되도록 우리의 나라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하는 생각에서 넘쳐나오는 모든 깨끗한 것을 거두어 모아내는 것이 이 『어린이』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정성으로 된 『어린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품에 안길 때 거기에 깨끗한 영(靈)의 싹이 새로 돋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⁴⁸⁾

자연의 자태, 한울 그대로의 어린이 세상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서 이는 곧 “한울나라”이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깨끗한 나라에서 살게 되도록 넓혀가야 할 “우리나라”였다. 동학의 어린이 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인류적 차원에서 내다보는 것인 동시에 “깨끗한 영(靈)의 싹을 돌아” 빈사상태의 생명과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자 했던 근본적 치유헌동이자 생명교육의 운동이었다.

2. 생명교육의 기초

어린이에게서 원기가 뻗치고, 자연 생명을 느끼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 되는 기쁨은 곧 우주생명과 하나 되는 영부의 체험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정환은 10년 후를 기

45) 같은 글.

46) 『『어린이』를 발행하는 오늘까지』, 『어린이』1-1, 1923.3.20.(본 연구에서 잡지 『어린이』의 원문을 인용할 때 현대어법에 맞게 약간 고쳐 옮겼음을 밝혀둔다).

47) 이용순, 『씩씩한 소년이 됩시오』, 『어린이』1-8, 1923.9.15.

48) 『처음에』, 『어린이』1-1, 1923.3.20.

약하고 “어린이들이 새 세상의 새 일꾼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⁴⁹⁾에서 또한 “진리인 인내천주의 하에 절대평등으로 즐거운 평화한 날을 생각”⁵⁰⁾하면서 『어린이』를 통한 생명교육을 시작했다. 생명교육은 ‘생명사랑’, ‘자연’, ‘눈물’, ‘용기’가 그 핵심이 되었는데, ‘생명사랑’과 ‘자연’을 통해서는 어린이의 원기(元氣: 한울님)를 기르고, 생명과의 교감을 중시했다. 그리고 이를 동요, 동화 등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에 담아 한울의 인간 형성을 도모했다. 또한 ‘눈물’을 통해서는 타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생명의 연대의식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흔히 방정환의 어린이운동을 동심주의, 혹은 눈물주의라고 일컫는데, 이 모두 생명의 연대감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절대 다수 농촌 어린이들의 참혹한 생활이나⁵¹⁾ 불쌍한 생명들의 이야기들⁵²⁾ 동화로 담아 눈물과 연민을 자아내고, 서로 돕는 고운 마음을 길러내고자 했다.⁵³⁾ 그리하여 그 연민의 마음이 눈물에서 머물지 않고 용기로 나아가 장차 조선의 현실을 바꾸고 조선 스스로의 힘으로서 현실을 타개할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탐정소설이나 구연동화, 혹은 세계 각국의 어린이 모험담을 통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씩씩함을 잃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 생활

49) 목성,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이에 기르는 부형과 교사에게』, 『천도교회월보』, 1921.2.

50) 소파, 『교우, 또 한사람을 맞고』, 『천도교회월보』, 1921.2.

51) 방정환의 대표적인 소년소설로서 ‘동생을 차즈려’(『어린이』1925.1-10)’, ‘칠칠단의 비밀’(『어린이』1926.4-12)’, ‘少年三台星’(『어린이』1929.1)’, ‘少年四天王’(『어린이』1929.9-1930.12)’ 등은 천대받는 조선의 현실을 묘사한 것으로 검열에서 삭제되거나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생을 차즈려’에서는 주인공 창호가 청국사람에게 잡혀가 실종된 여동생을 찾고자 경찰에 갔으나 일본 경찰은 귀찮은 듯 들은 체도 하지 않아 결국 주인공을 도와주는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타 지역 소년회와의 연대를 통해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칠칠단의 비밀’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곡마단에 끌려간 조선의 두 어린 남매가 학대받으며 하루도 몇 번씩 피가 흐르게 두들겨 맞는 등 온갖 돈벌이의 도구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두 남매는 조선에서의 곡마단 공연을 계기로 외삼촌을 만나고 조선학생, 소년회 회원들과 중국 봉천의 한인협회의 도움으로 탈출한다. 특히 ‘칠칠단의 비밀’에서는 ‘동생을 차즈려’에서와는 달리 일본경찰의 방관보다 한술 더 떠 경찰이 두 남매의 탈출을 막고 오히려 곡마단에게 다시 넘겨주는 상황도 묘사하고 있다.(염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23쪽 참고)

52) 날개 힘이 약하여 어른들 기러기 떼에서 뒤떨어진 어린 외기러기가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 죽어가는 슬픈 이야기(이성환, 『달밤에 울고 있는 외로운 드리박』, 『어린이』3-10, 1925.10.1) 등.

53) 어린이 운동에서 지향했던 ‘새 일군’의 인간상은 일체감에 바탕하고 있는 슬픈 이야기들 속에서 연대감을 기르려고 했다. ‘다리를 못쓰는 친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곡마단을 탈출해 좋은 의사를 데려오는 소녀이야기(『雪中美話-불쌍한 두 소녀』, 『어린이』2-12, 1924.12.11)’, ‘병든 어머니때문에 구걸을 하는 소년을 위해 스스로도 나쁜 사람에게 잡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동냥한 돈을 모두 털어내어 주는 소녀(『애련미화 - 눈물의 노래』, 『어린이』3-10, 1925.10.1)’, ‘도난이 발생하여 범인을 색출하기 전까지 집에 못가는 친구들을 위해 기꺼이 누명을 쓰는 학생 이야기(『어린이 독본:제2장 적은 용사』, 『어린이』5-2, 1927.2.1)’, ‘동냥하는 어린 거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입 맞추고 돈을 주는 여자보통학교생 이야기(『어린이독본: 제4과 참된 동정』, 『어린이』5-4, 1927.5.1), 기러기 떼를 놓쳐 부모와 동무를 잃은 어린 외기러기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이성환, 『달밤에 울고 있는 외로운 드리박』, 『어린이』3-10, 1925.10.1) 등 많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의 본질이 즐거움과 기쁨의 정서에 있음을 강조하여 ‘깔깔 소(笑)학교’란을 마련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우스개 방귀 이야기’나 어리석은 주인공을 설정해 우울한 기분을 털어내도록 하였다.⁵⁴⁾

마음을 고요히 하여 깊이깊이 생각해봅시다. ... 설운 눈물을 남모르게 흘리는 우리는 항상 웃기를 잊지 맙시다. ... 항상 싱글싱글 웃는 사람만이 늘 커가는 사람ियो 그날그날을 재미있게 지내는 사람입니다.⁵⁵⁾

참지 못하는 웃음, 그것은 “사람들의 뻥뻥하고 팽팽한 생활을 느추어 주고, 또 축여 주는 힘”을 가졌고,⁵⁶⁾ 사회·환경적으로 짓눌려 있는 어린이에게 웃음은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이완시켜준다. 그러나 방정환이 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은 외면적 웃음보다 내면에서 솟는 기쁨이었다.⁵⁷⁾

어린이는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놀고, 기쁨으로 커 간다. 뻗어나가는 힘! 뛰노는 생명의 힘! 그것이 어린이다. 또한 한울님이다. 온 인류의 나아짐과 높아짐도 여기 있는 것이다.⁵⁸⁾

어린이의 기쁨은 어린이의 뻗어나가는 힘에 있고, 그 힘은 생명의 힘ियो 한울님으로 그 한울님이 커나갈 때 인류의 진보도 인류의 고양도 있다. 원기를 길러 치유를 도모하는 동학의 생명교육에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중첩되어 있다. 생명운동에는 자연, 기쁨, 눈물이 중시되고 원기의 충만함이 목적이 되는 반면 사회운동적 차원에서는 연민, 모험, 용기를 자아내고자 했던 양면성을 지닌다.⁵⁹⁾ 동학의 영부가 “사람의 병을 건지고 사람의 죽은 魂을 구하여 산魂으로 돌이키며 인간사회의 모든 죄악과 폐막(弊瘼: 폐단)을 다스리는 불사약(不死藥)”⁶⁰⁾이라 한 것처럼, 방정환의 생명교육 역시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꿰뚫어져 있는 우주생명체”, 즉 생혼(生魂)의 원기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고자 했던 총체적 치유라 할 수 있다.

54) 이러한 작품의 예로는 양초귀신, 설떡술떡, 웅괴스세음, 방귀출신崔덜렁, 꼬부랑 할머니, 허풍선 이야기, 노래주머니, 톱기의 재판, 등을 들 수 있다.

55) 조재호, 「우서라!」, 『어린이』4-10, 1926.11.1.

56) 講師 깔깔博士, 「우습의 哲學」, 『별건곤』, 1927.8.

57) 방정환, 「어린이 찬미」, 『신여성』2-6, 1924.6.

58) 같은 글.

59)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생명교육의 주된 내용인 자연생명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조선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눈물, 용기의 교육과 관련된 것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60) 이돈화, 『천도교창건사1』(경성: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13쪽.

IV. 생명교육의 전개

1. 자연생명예의 교감

자연과의 교감은 화응하는 생명의 기쁨을 어린이에게 가져다준다. 어린이 눈에 보이고 어린이 귀에 들리는 모든 자연의 모습이 어린이와 일체가 되어 환희와 흥미가 깊은 마음 속으로부터 온몸 머리끝까지 새어나와 생기가 가득 차는 것이다.

숨는 때 뿔는 때 크고 자라는 때! 새세상 새사월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훗훗한 숨옷을 벗어버리고 산에 가십시오 들에 가십시오. 적은 새 우는 소리에도 새생명은 차 있고 한잎의 풀끝에도 새생명은 솟고 있습니다. 새같이 꽃같이 어여쁘게 갈 씩씩하게 커갈 어린 동모들이여 산애고 들에 가십시오. 그 귀엽고 힘있는 새생명이 당신들의 머리와 가슴에 스며들어서 당신들도 생기있게 뿔어가야 할 것입니다. 새생명에 뛰놀아야 할 것입니다. 산으로! 들로! 다같이 가십시오. 날마다 가십시오.⁶¹⁾

산과 들로 나가 “작은 새소리에도 차 있고 한 잎의 풀끝에도 솟아나는 귀여운 새생명”에서 어린이의 마음은 우주생명으로 생기있기 자란다. 자연생명과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는 맑고 고운 동심은 영부의 체험과도 같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자연과 하나되어 심신이 우쭐우쭐 자라나는 것이었다. 어린이운동에서 어린이의 가장 큰 학교는 대자연이고, 대자연은 곧 산 곶고 물 맑은 우리의 금수강산이다.⁶²⁾

어린이 운동에서 동요도 자연 생명과의 교감을 끌어낸 아동예술이었다. 동요는 “어여쁜 새라든지 고운 꽃이라든지 조그만 시내라든지 큰 바다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그 무엇이든지 눈에 띄일 때 귀에 들릴 때 즐거워서라든지 슬퍼서라든지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우러나와서 입으로 노래한 것을 글자로 기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게 한 것”⁶³⁾이 동요이다.

나비야 나비야 너 어데 즐거웁게 춤을 추며 뛰어가느냐 네 모양 볼 때에 내마음 기쁘다.⁶⁴⁾

동요는 우연히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마음과 기운이 스스로 낳아 놓는 것으로 아동을 자연으로 이끌어 스스로 우리나라를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령 따뜻한 봄날에 움도 다 난 꽃나무 가지에 어여쁜 새가 앉아서 미친 듯이 지저귀고 있는 것을

61) 「4월」, 『어린이』2-4, 1924.4.19.

62) 이병두, 「自然의 大學校:나의 사랑하는 우리少年동모들에게」, 『어린이』1-8, 1923.9.15.

63) 「동요짓는 법, 동요는 글이 아니요 노래입니다」, 『어린이』2-4, 1924.4.19.

64) 「동요」, 『어린이』1-8, 1923.9.15.

볼 때에 지저귀는 새의 기쁨은 어떠하며 꽃의 마음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든지 늦은 가을 서리아침에 울고 가는 기러기는 무슨 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든지 고운 꽃이 되어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할 때에 그 꽃 속에는 무슨 신비가 들어있을까?”⁶⁵⁾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⁶⁶⁾

자연과의 교감은 화옹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교훈적 가르침도 준다. “푸르른 잔디, 붉고 노란 꽃, 고운 노래를 부르는 새는 아름다운 느낌과 고운 마음을 길러주고, 길게 흐르는 맑은 물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꾸준한 부지런을 가르쳐 준다. 높고 높은 산은 독립자존의 기상을 일러주고, 폭폭 내려 쪼이는 태양은 몸을 튼튼하게 단련해 준다. 개미는 부지런한 지혜를 알려주고, 술개는 좋은 운동법을 가르쳐 준다.”⁶⁷⁾

자연은 스승이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자연을 보라’는 것은 단순한 싱거움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의 배움이다. “달을 배우고, 바람을 배우는 것은 시인이 될 밑바탕이 되고, 바다를 배우고, 대공(大空)을 배우는 것은 장차 도량(度量)이 넓어질 바탕이 되며, 들에 나가 쌀, 목화, 콩, 팥, 조, 피, 기장, 수수, 깨, 콩 등 모든 곡식을 구경하며 배워두는 것은 농부들의 고마움을 배우는 것”⁶⁸⁾이었다.

곡식 한알에 품이 열벧자루가 들고 시간이 5000시간이 넘어 드렸구나! 하고 따져볼때에 곡식이 었더케 거룩하고 또한 농부님들이 었더케 고마운지! 스스로 착한 눈물을 흘리고야 말 것이외다. 이것을 배워두십시오.⁶⁹⁾

그러므로 자연의 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큰 사람이라야 심신이 완전하다.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존경하며 사랑하고, “새, 짐승, 풀, 나무들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다.”⁷⁰⁾ 그리하여 “같은 한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함께 잘 살아 가도록 할 것”⁷¹⁾이었다.

자연의 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큰 사람이라야 심신이 완전한 사람일 것이요 그 사람이라야 빈한한 사람, 부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새 짐승 풀 나무들이라도 다 같이 사랑하여 같은 한 세상에서 즐겁게 기쁘게 함께 잘 살아 가도록 할 것이다. ... 대자연의 학교에 가서 노래 부르며 춤을 추라!⁷²⁾

65) 같은 글.

66) 윤석중, 윤극영, 방정환 등 이들이 만든 어린이 동요는 자연과 계절, 생명사랑, 그리고 동심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다.

67) 이병두, 『自然의 大學校:나의 사랑하는 우리少年동모들에게』, 『어린이』1-8, 1923.9.15.

68) 박달성, 『가을에 무엇을 배울까』, 『어린이』7-7, 1929.9.

69) 같은 글.

70) 이병두, 앞의 글.

71) 같은 글.

72) 같은 글.

2. 『어린이』와 생명사랑

자연생명은 인간과 더불어 하나의 생명으로서 친애하고 화응할 대상이지 생명을 꺾거나 죽이는 도구가 아니다. 『어린이』는 생명사랑을 중요하게 가르쳤다. 생명사랑은 동학의 삼경(三敬)⁷³⁾ 사상에 바탕한 것으로 해월은 “한 어린아이가 나막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 땅을 울리어 놀라서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나막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 ...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니의 살같이 하라.”⁷⁴⁾했다. 땅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해월의 마음은 우주마음이요 한울마음이다. ‘땅을 어머니 살같이 하라’는 가르침은 그대로 ‘흙 사랑’의 생명연대, 생명그물망의 이야기로 나타났다.

사람은 흙을 사랑하여야 쓰겠다고. 사람은 살아도 흙 위에 발을 딛고 살고 죽어도 역시 흙속으로 몸이 들어갑니다. 흙위에 강이 있고 산이 있으며 풀이 나고 나무가 크며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새가 노래하고 눈이 쌓이고 돌이 둥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여기서 나고 입는 것도 쓰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흙을 사랑치 아니하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굶어보면 모두 흙을 친하여 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 철모르는 어린아기도 놀려면 반드시 손발에 흙투성이를 하여가지고는 희득거리고 네뺏살된 어린이도 흙으로 그릇이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작난을 하며 농부가 밤낮으로 일을 하기도 구스름한 흙냄새를 맡아가며 논밭에서 일을 하고 제 아무리 신사양반이라도 흙을 밟지 않고는 누을 수도 앉을 수도 없으며 설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웅당 친하여야할 이 흙을 멀리하는 이도 많고 또 는 웅당 사랑하여야할 자기 사는 땅을 아는 척 모르는 척하여 버리는 이도 많습니다.⁷⁵⁾

생명교육은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살아 움직이며 외부와 순환하면서 서로 변화한다는 생명관에 입각해 있다. 이는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 자체에 대한 본체론적 사유로서 환경에 관심을 갖는 생태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전일적 자각과 창조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치유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식 틀을 우주생명의 중심으로 바꾸고, 지구 위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사는 공동 운명체임을 깨달아 그에 필요한 생명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행해진다. 『어린이』는 생명사랑과 발상의 전환을 담은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귀여운 피』⁷⁶⁾에서는 생명을 도구로 삼는 문명

73) “사람마다 마음을 공경하면 기혈이 크게 화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만물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온다.”(『海月神師法說』, 『誠敬信』, 人人敬心則 氣血太和 人人敬人則 萬民來會 人人敬物則 萬相來儀)

74) 『海月神師法說』, 『誠敬信』, 一小兒着屐而趨前 其聲鳴地 驚起撫胸曰 其兒屐聲 我胸痛矣 ... 惜地如母之肌膚.

75) 신영철, 『흙과 사람』, 『어린이』4-2, 1926.2.1.

76) 나비를 잡아 해부하려는 동생 창수에게 누나는 “나비가 측은하고 불쌍하지도 않느냐?” 하면서 나비를 놓아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창수는 해충이 무에 불쌍하냐면서 학교 도화 선생님은 나비를 일일이 쪼개 가면서 설명해주셨고 “너희들도 될 수 있는 데로 나비를 많이 잡아서 실제 연구를 많이 하라” 했다고

교육의 폐해를 표현했고, 『나무가 돌아단기는 이약이』에서는 식물도 마음이 있음을 일깨웠다.

여러분 공연히 나뭇가지에 매여달니거나 나무껍질을 벗겨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심사가 틀리면 그 나무는 말르게 해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 가버립니다.⁷⁷⁾

『제비는 당신을 압니다』⁷⁸⁾에서는 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생명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가을이 되면 제비는 새로 낳아 기른 아들딸을 데리고 남쪽으로 여행갈 준비를 하고 그 넓은 바다를 한숨에 건너가는데 그 “제비가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물음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어린이』에는 제비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동학경전에서 “제비의 알을 깨뜨리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할 것”⁷⁹⁾이라고 말한 가르침과도 통한다. “조류 3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3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敬物하면 덕이 만방에 미칠 것”⁸⁰⁾이었다. 천지 생명이 한 몸인 것이다.

소리를 지른다. 이에 누나는 “현대문명의 교육이 천사같이 곱고 맑은 어린이의 가슴에 얼마나 물질적 무자비한 최악의 병균을 모르는 동안에 감염시키는가를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신성한 가슴에 적지않은 아픔”을 느낀다. 이에 누나는 해부의 칼을 막다가 잘못 찢려 피를 흘린다.(雲庭, 『귀여운 피』, 『어린이』 1-3, 1923.4.23.).

77) 식물도 마음에 안 맞는 곳에 있거나 나쁜 것들이 많은 곳에는 있기 싫어하고 다른 좋은 곳을 찾아 돌아다닌다. 만약 별로 잘 안들고 출기만 한 곳이나 땅속에 바위가 있어서 뿌리로 빨아먹을 것이 없는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큰 나무들이 많아서 햇볕과 땅속에 먹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얻어먹지 못할 곳에 갔다가 놓아두면 그만 낙심 절망한다. 그래서 나무가 만일 그곳에 있기를 싫증이 나면 뿌리로 땅속에 있는 물과 여러 가지 양식을 빨아서 가지와 싹으로 올려 보내던 것을 딱 끊고 뿌리로 영양분을 보내 다른 곳으로 뻗어가 다시 땅위로 싹을 내보낸다는 이야기이다(『나무가 돌아단기는 이약이』, 『어린이』 2-6, 1924.6.1.).

78) 원문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가 훌륭하게 길고 몸이 날에서 날으기를 잘 날았는데 어느 유명한 학자가 그 속력을 계산하여 보니까 한 시간에 400리나 날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비는 생김생김이와 같이 무섭게 약고 영리하여서 그 전해 살든 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이듬해에 반드시 그집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몰라도 당신과 당신의 집을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당신의 맥 처마 끝에 제비의 집을 제비가 간후에라도 헐지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내년 봄에는 반드시 그 제비가 또 찾아옵니다. ... 가을이 되면 제비는 새로 낳아 기른 아들딸을 데리고 남쪽으로 여행갈 준비를 합니다. 자기와 아들딸이 모다 먹을 것을 든든히 먹고 그리고 동리집 제비들과 의논하여 약속하고 모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다 모여서는 빠진 동무가 없는가 살펴본 후에 높은 나무위에나 또는 전기선 줄위에 모여서 방향을 정하고 일제히 날아갑니다. 그 넓은 바다를 한숨에 건너간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제비는 당신을 압니다』, 『어린이』 1-3, 1923.4.23)

79) 『海月神師法說』, 『其他』.

80) 『海月神師法說』, 『其他』.

제비를 잡아볼가 집을 허물가
 아니면 두었다가 새끼를 잡을가
 아니아니 그것은 불상하지요
 우리집에 깃드린 고운 제비는
 여름동안 새끼를 길러놓고요
 가을되면 강남으로 건너간대요
 다시금 봄이 되면 새끼다리고
 고향의 우리집을 찾아온대니
 고히고히 길러서 두고봅시다.⁸¹⁾

3. 자연놀이 프로그램

방정환은 천도교소년회 조직을 통하여 “그 철 그 철의 변하고 움직이는 자연과 친하기를 힘씀”⁸²⁾에서 썩썩한 원기를 길렀고, 특히 변화하는 계절에 화응하는 자연놀이를 통해 심신발육을 도모했다. 조선의 소년소녀들이 더불어 쉽게 놀 수 있는 것이 자연밖에 없었기도 하지만 자연 자체가 지니는 생명의 육성을 『어린이』지는 주목했던 것이다. 자연은 곧 생명교육의 배움터요, 각 계절의 생명과 친하고 그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생명교육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1) 봄놀이

사계절 중에 ‘봄은 움직이는 철’이다. 겨울에 움츠렸던 모든 것이 새로 활개를 펴고 새로 호흡을 하고 새로 소리를 치고 일어나는 봄의 소리를 통해 어린이의 원기를 기른다.

제비도 돌아왔습니다. 새들은 모두 보금자리를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다 좋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 봄처럼 좋은 때는 없다고 하고 싶게 됩니다. 자-우리들도 봄을 맞으러 나아가십시오.⁸³⁾

산에 가서 골짜기의 흐르는 물로부터 봄소리를 듣고, 들에 가서 가지에 나르는 새소리로부터 봄소리를 들으며, 땅위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넓고 넓은 대지가 움죽움죽 움죽이는 소리를 들음에서 원기를 기름이었다.⁸⁴⁾ 그 ①[봄소리를 듣고, 느끼고, 그 소리에 화답하고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대지의 움직임을 느끼고 새와 같이 새싹과 같이 어린이도 함께 움직여 뛰고, 놀고, 썩썩하고, 쾌활하게 자라날 것이었다.⁸⁵⁾ 가만히 땅위에

81) 『동요 제비』, 『어린이』4-5, 1926.5.1.

82) 『『어린이』가 발행되기까지 이러케 지내여왔습니다』, 『어린이』1-1, 1923.4.1.

83) 『봄! 봄!!』, 『어린이』4-4, 1926.4.1.

84) 『봄소리』, 『어린이』1-2, 1923.4.1.

귀를 기울여 그들의 움죽움죽 소리를 듣고, 느끼고 화옹한다는 것은 매우 미묘하고 의미가 큰 것으로 이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갖는 놀이이자 각기 부여받은 생명을 저마다의 무늬로 만들어가는 자기성장의 화합이었다.

②[꽃놀이]는 봄의 계절 자연놀이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꽃철, 어여쁘게 방긋 웃는 꽃들을 귀엽게 사랑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거기에는 꽃을 꺾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꽃철이 왔습니다. 따뜻하게 ... 어여쁘게 향긋하게 뽀얗게 웃는 꽃을 당신은 차마 악착스럽게 꺾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꺾지 말고 상하지 말고 그대로 귀엽게 사랑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왜 꺾기까지 하겠습니까?⁸⁵⁾

또 봄에는 ③[꽃씨를 심는다.] 꽃씨심기는 자라나는 생명에게서 재미와 기쁨을 얻고 속살거리는 자연의신비로부터 사랑을 느끼고자 함이다. “조금씩 자라나는 싹을 보고 사랑하는 꽃이 어여쁘게 피어 자기가 심고 길러서 피워 놓 아름다운 꽃의 향내를 맡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느냐”⁸⁶⁾는 것이다.

그 꽃다운 냄새와 빛과 모양을 가지고 자연의 신비를 가만히 남에게 들리지 않게 속살겨려주는 것이 어찌도 사랑스러운지요.⁸⁷⁾

2) 여름놀이

시골의 여름은 어느 철보다 산기운이 있는 때요 힘있는 철이요 희망 있는 시절이다. 시골의 첫여름은 “보이는 빛, 들리는 소리가 모두 자연의 박람회요, 음악회요, 미술전람회”⁸⁸⁾이다. 여름은 “굳세고 굳센 힘이 모든 물건 속에 잠겨오는 때”⁹⁰⁾이다. “앞으로 올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연의 밑에 자유로이 운동”⁹¹⁾하는 때이므로 여름놀이는 ①[자연박람회 구경]으로부터 시작한다.

비개인 첫여름날의 시골! 산으로 가면 푸른나무, 강으로 가면 푸른 물결, 들로 가면 푸른 모닥, 밭으로 가면 푸른 보리, 언덕으로 가면 푸른 풀, 채포로 가면 노란 한나물꽃, 나물꽃 밑에서 병아리가 울고 벼들가지에서 피꼬리가 노래하며 늦은 밤 논둑에서 개루기가 작작 거리고 이른 아침 뒤 골짜기에서 꿩이 나래를 칠제 농촌을 평화한 속에 곱게 싸고 춤추는 푸른나무의 어린잎사귀를 보면 기쁨이 반드르르 흐르는 것 같다. 푸르고도 아직한 노릇노릇한 맛이 띄어 있는 어린 잎사귀의

85) 같은 글.

86) 『꽃놀이』, 『어린이』1-3, 1923.4.23.

87) 『꽃재배』, 『어린이』4-4, 1926.4.1.

88) 신영철, 『봄철에 가장사랑하는 꽃』, 『어린이』4-4, 1926.4.1.

89) 『첫여름을 마즈면서, 시골소년들께 드리는 편지』, 『어린이』4-6, 1926.6.1.

90) 같은 글.

91) 같은 글.

그림자가 한울에도 비치고 물에도 비쳐서 위아래가 다같이 푸른 세계를 만든다.⁹²⁾

둘째로, 여름놀이는 ②[파란 생명과 친하는 화옹]이다.

산도 들도 파랗습니다. 파란 것은 모다 옷줄옷줄 커가는 생명입니다. 파란 생명과 친하는 것은 내 생명을 키우는 데에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⁹³⁾

산으로 들로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대자연을 교실로 삼고 뛰고 날뛰며 노는 것이 얼마나 유쾌한 것인가. ...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대자연의 품으로 들어가서 기운있고 씩씩하게 살아가 할 것이외다.⁹⁴⁾

여름의 신록은 씩씩하고 기운찬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한 소년의 자연놀이의 실재를 보면 점동이라는 소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천도교소년회의 표어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바라보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수양버들과 피꼬리를 보며, 북악산의 뻗꼭새 소리를 뜻있게 한참 듣는다. 그리고 북방망이 같은 술순을 어루만지면서는 씩씩한 기운을 느끼고, 아 울러 기꺼운 웃음을 웃는다.

나는 천도교소년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준 표어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듯이 보기로 합시다’라 한 그 표어를 그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침 다섯시면 꼭꼭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대로 손수 건하나들고 취운정으로 산보를 갑니다. 가서는 맑은 샘물에 세수를 하고 흰모래 밭우로 왔다갔다 하며 고함도 치고 체조도 하고 한참 운동을 하고나서는 수양버들에 노는 피꼬리를 재미있게 보고 북악산에서 우는 뻗꼭새소리를 뜻있게 한참 듣습니다. 나도 그의 따라서 자미나는 창가로써 화창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북방망이가튼 술순을 어루만지며 ‘아! 씩씩하게도 기운차게도 잘도 자란다! 이것이 커서 기둥도되고 대들보도 되지! 우리 소년들도 나도!’ 하고 크다란 희망과 아 울너 깃겨운 우습을 웃습니다.”⁹⁵⁾

또 6월에는 ③[“앵도, 오이, 참외”가 익는 ‘6월의 한울님’]을 가르친다. “포동포동한 앵도를 입안에 굴릴 때, 곱곶한 오이를 쓰다듬을 때, 더구나 참외를 깎아먹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해 어린이에게 한울님 자연의 은혜를 가르친다. 앵도는 그저 앵도나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흙에서 자라고, 비를 맞고, 햇볕을 보며, 밤엔 이슬을 맞고 자라난 것”이다. 이 모두 한울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공경하고 감사해야할 자연임을 어린이들에게 말해 준다.

92) 같은 글.

93) 『新綠小話』, 『어린이』7-4, 1929.5.20.

94) 조재호, 『유익한이야기 방학중의 시간생활』, 『어린이』7/8호 합호, 1929.6-7.

95) 『新綠小話』, 『어린이』7-5, 1929.6.20.

앵도가 어대서 생기나 오이 또 참외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앵도는 앵도나무에서 따고 오이는 오이 덩굴, 참외는 참외 덩굴에서 따지 어대서 생기나 하겠지요. 그러나 앵도나무와 오이덩굴과 참외덩굴이 어대서 자랍닛가 그것은 땅에서 흙에서 자랍니다. 비를 맞고 햇빛을 보고 밤엔 이슬을 맞고 자라난 것이랍니다. 우리는 하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님이라닛가 금옷을 입고 수염이 나고 증조하라버지처럼 위엄이 있서 보이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가리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자연이 곧 우리가 공경할 하늘님이니 흙도 하늘님이요 비도 하늘님이요 해도 이슬도 모다 하늘님이옵시다. 하늘님은 앵도를 익혀줍니다. 오이를 열게 해주고 참외를 따먹게 하여줍니다. 유월의 하늘님은 참말 감사합니다.⁹⁶⁾

또한 여름날 아침 일찍 동트는 한울을 보는 것은 시원하고 아름답다. 효남이라는 소년은 “어두운 한울에 폭포 물줄기 가티 시원하고 맑은 새벽빛이 줄기줄기 빛나고 거긔서 싸늘하고 상쾌한 기운이 솔솔 흘러나리는 것갓다.”⁹⁷⁾고 표현한다. 그리고 산허리에서 동편을 향하여 심호흡을 일곱 번씩 한다.⁹⁸⁾ 여기서 맑은 공기를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는 ④[7번의 심호흡]은 천지 기운의 소통이자 심신을 건강하게 할 것이었다.

이 외에도 날이 갠 청명한 날, 무리를 지어 산에 올라 먼 곳을 널리 바라봄도 좋고 물가에 가서 헤엄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었다. 특히 5월 단오, 7월 칠석 같은 날에는 동산이나 넓은 마당에 모여 창가와 이야기, 달밝은 밤의 달놀이 등으로 ⑤[절기놀이]를 꾸미기도 하였다.⁹⁹⁾

3) 가을놀이

가을철은 쓸쓸한 가을을 소재로 생명교육하기 좋은 계절이다. 가을이 오면 나무와 이별을 고하는 단풍잎들의 울음소리, 개구리의 울음소리, 주춧돌 밑 귀뚜라미의 노래가 다 구슬프게 들린다. 그 때 어린이의 가슴 속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리하여 어린이의 가슴속에 “가을은 숨어든다.”¹⁰⁰⁾ 가을놀이의 시작은 ①[슬픈 가을소리를 듣는 가을맞이]에서 시작한다.

해가 저물고 저녁바람이 불어 올 때 나무숲에서는 붉은 잎 누른 잎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리고 것츠른 풀숲에서는 명짚은 벌레들의 슬픈 노래가 들린다. 그때에 자기의 가슴 속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¹⁰¹⁾

96) 『六月의 하늘님』, 『어린이』8-5, 1930.5.

97) 月見草, 『효남이 방학일기』, 『어린이』7/8월호(합호, 하기방학호), 1929.8.

98) 같은 글.

99) 이용순, 『씩씩한 소년이 되십시오』, 『어린이』1-8, 1923.9.15.

100) 최승일, 『이리하여 가을은 옵니다. 가을! 가을! 가을마지준비』, 『어린이』7-7, 1929.9.

101) 『어린이』3-10, 1925.10.1.

〈켓드람이소리〉

켓드람이 켓드르르 가느단소리
달님도 치워서 파랏습니다.
울밋헤 과꽃이 네밤만 자면
눈오는 겨울이 차저온다고
켓드람이 켓드르르 가느단소리
달밤에 오동닙이 떠러집니다.(소파, 『어린이』, 1924.10)

〈가을의 이별〉

나뭇잎: 안녕히계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나무: 벌써 작별하게 되었습니까? 섭섭합니다그러 아직일르니 좀더 있다 가십시오 그러
나뭇잎: 아즉이 무엇입니까 벌써 내 몸이 다 마른 걸이요 기러기도 다 지나가고 이웃나
무동무들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나무: 그래도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
나뭇잎: 벌써 눈올때도 가까웠습니다. 일찍 돌아가 땅속에 잠을 이루어야 내년 봄에 다
시 겨울을 나 당신의 가지에 피어나게 되지안습니까 자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 ... 눈물만 글썽.¹⁰²⁾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가느다랗게 이어져 가는 가을밤. 달님도 추위 파란밤. 오동잎은 떨어진다. 여기에는 생명들의 사라짐에 대한 애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가을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고 가을의 슬픈 노래로부터 자기 가슴 속 울음소리를 듣게 한다. 조용한 자연의 그윽한 울음소리를 들을 때 어린이의 가슴 속에는 “순결하고 천진한 눈물의 향아리의 뚝게가 벗겨지는 것이다.”¹⁰³⁾ 이는 청정한 눈물, 존귀한 눈물이다. “온갖 생물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열정”¹⁰⁴⁾은 이러한 “감정의 움직임에서 저절로 저절로 길러워지는 까닭이다.”¹⁰⁵⁾

어떤 사람은 낙엽 쓸기가 귀찮다고 떨어져 나부끼는 마른 잎을 미워하는데, 이는 벌써 자연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낼 좋은 마음이 없어진 사람이다.¹⁰⁶⁾ 좋은 것을 찾아내는 좋은 마음이란 생명과의 화응을 말하고 생명사랑을 말한다. 위에서 말한 나무와 나뭇잎의 대화처럼 ‘생명들의 이별을 슬퍼하는 고운 감정’을 길러내는 것이 가을놀이의 생명교육이다.

아아 가을 ... 쓸쓸하고 구슬픈 이야기를 하여도 좋은 가을은 왔다. 고운 감정을 길르기에 좋은 가을은 왔다.¹⁰⁷⁾

102) 『가을의 이별』, 『어린이』3-11, 1925.11.1.

103) 『어린이』3-10, 1925.10.1

104) 『어린이』3-10, 1925.10.1

105) 『어린이』3-10, 1925.10.1

106) 『가을의 이별』, 『어린이』3-11, 1925.11.1.

107) 같은 글.

동심적 인간상은 일체감에 바탕하고 있는 슬픈 이야기들 속에서 길러진다. 못 생명에 대한 눈물은 천사적 동심과 통한다. 슬프고 고운 감정의 움직임은 온갖 생명에 대해 연민과 연대를 가질 수 있는 한울생명적 인간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울생명의 인간은 일체감에 바탕하고 있는 슬픈 이야기들 속에서도 길러진다.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 광고를 보면 동화읽기도 마음의 고와짐과 눈물의 감응을 목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미있기로 유명한 책, ... 그 어여쁜 책속에 있는 열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슬프고 불쌍하고 재미 있는지 서울시골 각 학교에서 연극으로 까지 하여 그것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말 이책을 읽고도 마음이 고아지지 않고 울지 않는 사람은 이상스런 사람입니다.¹⁰⁸⁾ 쓸쓸한 저녁 혼자 앉아서 어린가슴이 울고 싶을 때 사랑의 선물을 읽으십시오.¹⁰⁹⁾

실제로 『사랑의 선물』을 읽은 독자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순언문이라 떠들지도 안코 나리넛다가 나는 기어코 울었습니다. 배가 파선할때에 불쌍한 어린 남녀의 사정을 고는 그냥 죽죽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네레의 이야기도 울면서 었습니다. 아아 방선생님! 어더커면 그러케 곱고 아름답고도 그러케 불상함넛가 ... 참으로 사랑의 선물을 고 울지 않는이가 업으며 마음이 고와지지 안는 사람이 업습니다.¹¹⁰⁾

가을에는 생명의 이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밤늦도록 책도 보아지고 책상에 기대앉아서 깊이깊이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어진다. ②[『사랑의 선물』과 같은 책읽기]에서 어린이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앞으로 앞으로 건강하게 달음질 칠 수가 있게 된다.”¹¹¹⁾ 또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최한 ③[‘소년소녀대회’의 가을놀이]를 보면 구연동화나 동화극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¹²⁾

- 인사: 김기전 선생
- 재미있는 동화: 방정환 선생
- 새 동요: 독창- 정순철 선생
- 동화극 ①황금국/ ②앵무의 집/ ③노래주머니
- 舞蹈 여러 가지
- 현상, 글뽑기
- 問題 나의 소원: 당신이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08) 『광고: 소파 방정환씨 역편, 사랑의 선물(세계명작동화)』, 『어린이』2-3, 1924.3.4.

109) 『어린이』4-1, 1926.1.1.

110) 『사랑의 선물을 읽고...』, 『어린이』3-3, 1925.3.1.

111) 최승일, 『가을! 가을! 가을마지준비』 이리하야 가을은 옵니다, 『어린이』7-7, 1929.9.20.

112) 『가을노리 소년소녀대회』, 『어린이』1-8, 1923.9.15.

이 외에 가을놀이로 ④[달맞이], ⑤[가을맞이¹¹³⁾], ⑥[코스머스회(가을회)],¹¹⁴⁾ ⑦[추석놀이]¹¹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달맞이 놀이를 살펴보면, 이는 일년 중에 가을처럼 가장 맑고 서늘한 달을 맞이하여 노는 것이다. 음력 9월 보름날, 저녁을 일찍 먹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밤, 배, 포도, 감 등 과실을 조금 싸가지고 뒷동산이나 앞들이나 한곳에 모인다. 종이에 ‘가을놀이’, ‘9월 보름’, ‘달과 같이 둥글게’, ‘달과 같이 맑게’ 등 생각하는 글귀를 써서 나무에 달아 바람에 펄펄 날리도록 하고, 보름달의 흥취를 맛보는 놀이이다.

가을의 단풍과 익어가는 곡식, 높은 하늘, 맑은 물 이 모두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한량 없이 깨끗하고 높게, 기쁘게 할 것이었다. 몸을 가볍게 행장을 차리고 두 세 사람 동무와 함께 집을 떠나서 논길로 발두령으로 마음 가는 곳을 따라 가을을 맛보는 것, 이 역시 가을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한울은 끝까지 푸르고 들은 한엽시 널리 누른 빗치외다. 산에 오르면 붉은 단풍이 있고 밤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안습닛가? ... 해가 저물고 밝은 달이 동편 한울에 떠오를 때에 찬이슬을 밟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조깅입니다. ... 이것이 과연 가을을 맛보는데 가장 조흔 방법의 하나이겠습니까.¹¹⁶⁾

4) 겨울놀이

겨울은 산과 들이 모두 다 잠자는 소조한 때라, “기쁘게 뛰면서 뺏어가야 할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마음과 기운이 움츠러지기 쉬운 때”¹¹⁷⁾이다. 소년소녀들 자기끼리도 힘써 윈

113) 가을맞이 놀이는 산으로 점심을 싸가지고 가 가을꽃, 가을풀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 쭉 둘러서서 그 꽃이나 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놀이이다. 또한, 산 둔덕 편한 자리에 자리를 잡아 가을노래가 있으면 합창을 한다. 그리고 가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관한 감상, 가을꽃에 관한 이야기, 가을 풀에 관한 이야기, 가을에 관한 노래를 하고 점심을 먹는다. 점심을 먹고 씨름을 하든지 그림그리는 사랍은 사생을 하든지 만나무가 있으면 밤을 따서 화투불을 질르고 구워먹는다.

114) 코스머스회는 가을 동화회라는 의미로 가을의 꽃 코스모스에서 따온 것이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깨끗한 방을 치우거나 마당에서 한다. 옆에 마당인 경우 코스머스가 있거나 방인 경우 코스머스 화분이 있으면 좋다. 제각각 종이로 조그맣게 코스머스꽃을 만들어서 가슴에 꽂는다. 마당이나 동산에서 할때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각각 등을 한 개씩 수박등이던지 마늘등이던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초를 꽂아가지고 와서 불을 켜서 나뭇가지에 매어 달고 그 밑에 둘러앉아서 동화와 동요를 차례차례 나와 한다. 또 요술을 부리든지 다른 재주를 부리든지 춤을 추든지 또는 동물의 소리를 하든지 재주를 다하여 재미있게 가을날 하루밤을 즐겁게 놀고 지낸다.

115) 어린이잡지사의 주최로 소년소녀 추석놀이의 경우를 보면 개벽사 넓은 마당에 자리를 깔고 2천여명이 늘어 앉아서 전등 하나 켜지 않고 밝은 달밑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소년군악대의 음악과 방정환 선생님의 인사로 개회하고 김기전 선생님의 추석이야기, 방선생님의 달이야기가 재미있게 끝나고 모여온 소년소녀들 중에서 마음대로 나와서 달노래, 달춤(무도), 달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하였다. 또 그날 달 뜨는 시간을 미리 맞추어낸 18명에게 상품을 주고 밤 열시까지 재미나게 놀고 방선생님 발성으로 2천명이 소리를 질러 조선소년운동 만세를 세 번 부르고 송편떡 한봉지씩 가지고 기쁘게 헤어졌다. 펍광장한 놀이였다고 한다. (『가을노리 여러 가지』, 『어린이』2-10, 1924.10.1)

116) 김남주, 『가을맞을 잘 보는 법』, 『어린이』7-7, 1929.9.20.

117) 『유익하고 재미있는 하로밤 강습-소년회와 학교 선생님께』, 『어린이』2-11, 1924.11.1.

기가 상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 지도도 힘써 그들의 원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생활을 즐겁게 풍부하게 하는데 마음 써야할 계절이 겨울이다.¹¹⁸⁾ 겨울놀이로는 “조기회, 설중등산, 눈싸움 등으로 차례차례 때와 기후를 잘 참작하여 해주는 것이 좋은 일”¹¹⁹⁾로서, 겨울놀이는 ①[눈맞이: 눈오는 세상 바라보기]에서 시작된다.

겨울이 되어서 눈이 오시게 되기를 나는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깊이를 모르게 흐릿한 한울에서 그 하얀 눈송이들이 나비같이 춤을 추면서 나릴때에 어린 동무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오면서 눈오신다 눈오신다 하고 손벽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냥 춤을 추고 싶어 마음이 뛰눕니다. 눈은 다 죽은 겨울에 우리를 찾아와주는 단하나뿐인 반가운 손님이고 정다운 동무입니다.¹²⁰⁾

펼 펼 오는 손님 한우님 따님
분바르고 흰옷입고 춤을 추더니
보는사람 부끄러 숨어버렸네
까만 한울 높아서 멀리나려와
반겨맞는 사람의 어깨툑치고
인사한말 안하고 숨어버렸네¹²¹⁾

하얀 눈을 “한울님 따님”, “한울 손님”으로 묘사하면서 어린이로 하여금 눈의 아름다운 모양을 기쁜 마음으로 구경할 것과 그 눈이 다 내려쌓인 후에는 동무들과 ②[눈싸움]도 하여 그 눈 속, 투명한 얼음 위에서 아이들이 더욱 씩씩한 기운을 길러 가도록 하는 것이 겨울놀이였다.

벌써 눈 올때가 되었습니다. 저 높고 높은 허공에서 그 하얀 눈이 깜박-깜박 - 내려오는 말할 수 없이 좋고 아름다운 모양을 기쁜 마음으로 구경하다가 그 눈이 다 내려쌓인후에는 씩씩한 소년은 누구든지 눈싸움을 해보고 싶어합니다. 눈싸움! 이소리에 어린 사람의 기쁨은 뻗치고 가슴은 뛰놀아 아무런 추위라도 오히려 이기고 뛰어납니다. ... 하얀 동무 한울손님이 내려올때가 되었습니다. 천하사람이 모두 웅크려 엎드리더라도 우리 어린이의 동무여러분! 눈속에 어름 위에 더 씩씩한 기운을 기르시기 바랍니다.¹²²⁾

③[얼음놀이] 또한 겨울의 주된 놀이였다. “스케트 대신에 험고 조그마한 널자박을 가지고 어름의 높은 곳에 널판을 놋코는 올라앉아 즈르륵 미끄러져 아래로 내려가되 마즈막에는 사람과 널판이 따로따로 미끄러져나가는”¹²³⁾ 놀이이다. 어린이들은 해가 넘어갈

118) 같은 글.

119) 같은 글.

120) 『눈이 오시면』, 『어린이』2-12, 1924.12.1.

121) 『첫눈』, 『어린이』2-12, 1924.12.1.

122) 『가을의 이별』, 『어린이』3-11, 1925.11.1.

때까지, 무섭게 부는 골바람도 추워하지 않고 벌건 다리, 벌건 손으로 큰 돌을 어른 위에 놓고 차기도 하고 밀어도 보며 즐겁게 논다.¹²⁴⁾

방정환은 특히 겨울놀이로 ④[“눈과 하늘, 동리와 별관, 겨울이 모두 한 뭉치가 되어 자연을 삼키는 것”, “눈과 함께 사는 것”]¹²⁵⁾을 중시했다. 들판에서 하늘과 눈이 한 뭉치 되는 어린이의 마음은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그 밖의 놀이로는 “화초분 키우기”도 있다.¹²⁶⁾ ⑤[화초분 키우기는 생기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겨울에 “배추잎이라도 무싹이라도 책상위에서 파랗게 커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¹²⁷⁾이었다.

V. 결론

암울했던 구한말, 동학은 광제창생의 기치를 걸고 영부를 통해 세상을 질병으로부터 건지하고자 했다. 영부는 우주의 혼원한 일기로 천지만물은 우주의 한 기운을 받아 생성된 우주생명체를 상징함이었다. 해월은 영부의 형상이 “태극과 궁궁”으로 묘사된 것을 곧 “궁을”이라 칭하고 궁을의 형상은 곧 마음 ‘심(心)’자(字)이자 천지의 형체라 했다. 마음은 인간에게 있는 본연의 한울인 동시에 천지만물이 본래 하나인 일심이다. 일심은 천지의 마음으로 신령하고, 또한 천지의 기운으로 천지에 가득 차 우주에 뻗쳐있다.

수운은 영부체험으로 말미암아 몸이 윤택해지고 얼굴이 환대되며 묵은 생각과 낡은 마음이 구름같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신이 샘같이 솟으며 한울과 땅의 뿌리가 보이는 듯하며, 만물의 본성이 눈앞에 환하게 비추어졌다. 영부의 치유는 우주생명체의 한 마음, 한 기운을 자각함으로 자신을 치병(治病)하는 것이고, 우주정신의 ‘산 魂’을 회복함이며 나아가 인간사회의 폐단을 치유하는 불사약의 총체적 치유였다. 즉 천지 마음, 천지 기운과 하나 되고, 천지만물을 꿰뚫어 우주로 뻗치는 일통(一通)의 우주생명체험이 곧 영부의 치유였던 것이다.

일제하 방정환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어린이운동에서 영부는 생명, 원기로 표현되면서 생명사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사상의 핵심은 각자의 생명이 부분을 경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주전체와 엮여 있는 생명으로서 “나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를 합한 것”이라는 사유를 전개했다. 현대과학에서도 프랙탈 구조를 말하고 전체와 부분의 경계를 허물며, 부분과 전체의 끊임없는 순환을 강조하고,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그물망

123) 『산골어린이의 겨울나기』, 『어린이』3-3, 1925.3.1.

124) 같은 글.

125) 『겨울방학에 무엇을 할가! ... 유익한 일/자미있는일 ...』, 『어린이』6-7, 1928.12.20.

126) 같은 글.

127) 같은 글.

적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제하 방정환은 조선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사회적 치유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원기를 기르는 생명교육을 통해서였다. 어린이들에게서 새로운 원기와 패기가 넘쳐흐르면 교사와 부모, 나아가 일반 사회가 자극되어 삼천리 전체에 차고 넘칠 것이었다. 그가 “원기의 씩씩함”을 강조한 것도 동학적 세계관인 영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원기의 씩씩함이 빛는 자연의 자태, 한울 그대로의 어린이 세상은 침탈당한 조선을 새롭게 만들 조선의 이상이자 세계의 이상이기도 하였다.

어린이 생명교육의 주된 내용은 생명, 자연, 눈물, 용기가 그 핵심이다. ‘자연 생명’을 통해서는 어린이의 원기(元氣: 한울님)를 기르고, 생명에의 교감과 사랑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통해 한울의 인간 형성을 도모했다. ‘눈물’을 통해서는 타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생명의 연대의식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연생명에 대한 교육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연놀이였다. 암울하고 험난했던 일제치하에서 조선의 근본적 치유를 어린이의 생명교육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안겨주고, 현대사회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의 모색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開闢』
『東經大全』
『別乾坤』
『新女性』
『어린이』
『天道教會月報』
『學生』
『海月神師法說』

- 강신익/김시천 엮음. 『생명, 인간의 경계를 묻다』.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08
- 김용해. 「시천주 조화정: 신앙과 치유의 원리」. 『동학학보』17 (서울: 한국동학학회. 2009)
- 김우창. 『풍경과 마음』. 서울: 생각의 나무. 2003
- 김우창. 『깊은 마음의 생태학』. 서울: 김영사. 2014
- 박맹수.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동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4
- 소춘김기전선생문집편찬위원회. 『소춘 김기전 전집1』. 서울: 국학자료원. 2010
- 엄성은·홍은주. 「전래동요를 활용한 자연친화교육의 방향 모색」. 『국악과 교육』21 (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03)
- 에드워드 윌슨. 『생명의 미래』.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5
- 염희경. 『소과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기상. 「생명의 진리와 생명학: 지구 생명시대의 생명문화 공동체」. 『해석학연구』22 (서울: 한국해석학회. 2008)
-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경성: 천도교중앙종리원. 1924
- 이돈화. 『천도교창건사1』. 경성: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 이유경. 「천도교 교조 수운 최제우의 원형적 체험과 치유적 수용에 관하여」. 『심성연구』23 (서울: 한국분석심리학회. 2008)
- 장희익. 『물질, 생명, 인간 : 그 통합적 이해의 가능성』. 파주 : 돌베개. 2009
- 제러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서울: 민음사. 2001
- 프리츠프 카프라. 김용정·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서울: 범양사출판부. 1998

원고접수일: 2014년 11월 20일 심사일: 2014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3일

연구자 소개: 정혜정

- ① 전공 : 한국교육철학 / 소속 : 원광대학교 HK마음인문학연구소
 - ② 관심영역: 동양교육사상, 마음인문학, 마음교육, 마음치유
 - ③ 주요논저: 『동학의 심성론과 마음공부』, 『마음과 마음(공저)』, 『우리시대의 인간상(공저)』, 「조선 선불교의 심성이해와 마음공부론」
 - ④ E-mail: jhjnim@hanmail.net
-

Abstract

Mystical form and Life Education as Healing of Tonghak(東學)

Jung, HyeJung

Wonkwang University

The attempt to understand Donghak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Korean thought has been made several times. Donghak may have begun in Suun's experience of Youngbu(靈符). The originality in the concept of Youngbu is mystical form and symbolizes the Taiji(太極) and KungKung(弓弓). Youngbu is called by Sunyak(仙藥) or Bulsayak(不死藥) in text of Dongkyungdaechon(東經大全). It means the universal mind and ether. Youngbu is inherent mind in a human being. Also It means a One Ki(一氣)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universe through the filling in of all things. And all things of the heaven and the earth constitutes the original One mind(一心). So this is referred to as the mind of Youngbu(靈符心) and Hanul. Human is Hanul(人乃天), and Hanul is the mind of Youngbu(靈符心). And Hanul is in all things.

In Donghak Healing is to realize the Youngbu. To realize the Youngbu is one through the Hanul mind and One Ki. It will be a oneness. By realizing the oneness of mind and ether, humans can heal own disease and restore the cosmic spirit. Also furthermore, it should heal the evils of society.

The children's movement of Donghak under Japanese imperialism was spread around the Bang, Jeong-hwan and magazine "children". In this children's movement Youngbu were represented as 'life' or 'vigor(元氣)' and its main contents were life education. That it was a love of life and sympathy of life with the natural play, a children's art to experience sorrow and pain of others into tears, recognizing the reality of the miserable country (Chosun), and formation and solidarity of the 'subject' to build a new community of Chosun. Especially among the life education, sympathy with nature and love of life was embodied in the natural play through seasons play of spring, summer, autumn, winter. These give a lot of inspiration in modern education.

Key Words: Donghak, Haewol, Youngbu, Life, One Ki(一氣), life education, children movement, nature play